독파민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어휘3

문학 개념 어휘

01 운문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18쪽

1 (1) ㉠ (2) ㉢ (3) ㉡
2 (1) 투영 (2) 공감 (3) 환기
3 ③
4 예시 문장 시인은 홀로 선 나무 한 그루에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의탁하여 표현했다.

1 (1) '매개체'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낡은 사진첩'은 화자의 현재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어 주므로 '매개체'로 볼 수 있다.
(2)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활용되는 대상을 뜻한다. '차가운 달빛'은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므로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3) '감정 이입'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옮겨, 그 대상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바람이 울었다'는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바람에 옮겨 표현한 것이므로 '감정 이입'이 나타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1) '투영'은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것을 뜻한다. 판소리에 당대 서민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투영'이 알맞다.
(2)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뜻한다. 독자도 주인공의 외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공감'이 알맞다.
(3) '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했으므로 '환기'가 알맞다.

3 '조력자'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존재를 뜻하므로, 창밖 빗소리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진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장벽'은 둘 사이의 관계를 순조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하는 말로, 방해 요소를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❷ '방해물'은 일을 방해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로 문맥에 부합한다.
❹ '장애물'은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을 뜻하는 말로 방해 요소에 해당한다.
❺ '걸림돌'은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하는 말로 문맥에 어울린다.

4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을 뜻한다.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데 알맞은 대상을 찾은 후, '의탁'을 사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회 본문 021쪽

1 (1) 과장법 (2) 대조법
2 (1) 영탄 (2) 점층 (3) 연쇄
3 ㉠
4 ④

1 (1) 과장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또는 많거나 적게 표현하여 뜻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리고 반어법은 속뜻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문장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장법이 알맞다.
(2) 대구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여 리듬감과 균형감을 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대상을 맞세워 차이점을 부각하는 표현 방법이다. 제시된 문장은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 차이점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법이 알맞다.

2 (1) 시인이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을 강렬하게 드러냈다고 하였으므로,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 영탄법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감탄사와 감탄형 어미**

감탄사는 독립된 단어이고, 감탄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뒤에 붙는 어미라는 차이가 있다.

감탄사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 예 아!, 어머!, 아이고!, 와!
감탄형 어미	문장 끝에 결합하여 말하는 이의 감탄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어미 예 아름답구나!, 정말 높도다!, 벌써 봄이로구나!

(2) 점층법은 표현의 강도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점차 높여 가는 기법을 뜻하고, 점강법은 표현의 강도를 강함에서 약함으로 점차 낮춰 가는 기법을 뜻한다.
(3) 앞 구절의 끝말을 다음 구절의 첫말로 이어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연쇄법이 알맞다. 연쇄법을 활용하면 특정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화자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다.

3 비교법은 둘 이상의 대상을 서루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은 '청춘의 시간'과 '봄날의 꿈'을 서로 견주어 청춘의 짧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노트
㉡ 사람이 아닌 별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의인법이 쓰였다.
㉢ 여러 대상을 나란히 늘어놓아 표현한 문장으로, 열거법이 쓰였다.

4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 구절, 문장을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제시된 글에서는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흔들리고', '흔들린다'처럼 같은 어간이 반복되어 바람이 부는 상황과 마음이 흔들리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설의법은 답이 정해진 내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방법인데, 제시된 글에는 의문형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❷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로 감정을 강조하는 방법인데, 제시된 글에는 감탄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❸ 도치법은 정상적인 어순을 바꾸어 강조하는 방법인데, 제시된 글은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고 있다.

❺ 대조법은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인데, 제시된 글에는 대조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어간의 반복과 표현 효과**

어간(語幹)은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미가 바뀌어도 본래의 의미가 유지된다. 시에서 '흔들리고', '흔들린다'처럼 동일한 어간 '흔들리-'를 반복하면 핵심 의미와 정서가 누적되어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4 '모티프'는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을 말한다. 제시된 글에서 작가는 신분의 제약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녀가 죽음을 넘어 사랑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산백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티프'가 알맞다.

오답노트

❶ '전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펼쳐져 나가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나 생각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 어색하다.

❷ '환기'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말로, 마음을 무엇으로 '삼는다'는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❸ '암시'는 넌지시 알리거나, 또는 그 내용을 뜻하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❹ '매개체'는 둘 사이를 맺어 주는 것을 뜻하므로, 작품의 중심 사상을 가리키는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2 산문 ❶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24쪽

1 (1) 유기적 (2) 비장미 (3) 복선
2 (1) 인과성 (2) 숭고미
3 (1) ○ (2) × (3) ○
4 ⑤

1 (1) '유기적'은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성질을 뜻한다. 사건을 인과 관계에 따라 배열한다는 것은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는 의미이므로 '유기적'이 알맞다.

(2) '비장미'는 소망이나 이상이 현실의 제약으로 좌절될 때 느껴지는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것을 뜻한다. 반면 '우아미'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대상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주인공의 좌절에서 느껴지는 미이므로 '비장미'가 알맞다.

(3)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독자에게 미리 암시하는 표현 장치를 뜻한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심리적으로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설명이므로 '복선'이 알맞다.

3 (2) 우연하게 벌어지는 상황은 원인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우연성'과 관련 있다.

2회 본문 027쪽

1 (1) ㉡ (2) ㉠ (3) ㉢
2 (1) ○ (2) ○
3 (1) 특수성 (2) 패러디
4 (예시 문장) 작가는 원작의 결말을 바꾸어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1 (1) '여로형'은 주인공이 여행하는 과정을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 방식을 뜻한다. 주인공의 여행 과정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설명이므로 '여로형'이 알맞다.

(2) '삽화식'은 전체 이야기 속에 다른 짧은 이야기(삽화)를 끼워 넣는 구성 방식을 뜻한다. 전체 이야기 속에 '나'의 과거 이야기를 짧게 끼워 넣는다는 설명이므로 '삽화식'이 알맞다.

(3) '피카레스크'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전체 소설을 이루는 구성으로, 각 이야기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배경이 같고 동일한 중심인물이 계속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등장인물과 배경이 반복되면서도 각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피카레스크'가 알맞다.

3 (1) '특수성'은 특정 시대나 사회의 고유한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는 성질이다. 6·25 전쟁 직후 그 당시 사람들만이 겪었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작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수성'이 알맞다. '보편성'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로, 문학 작품에서는 시대와 사회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나 정서를 다루는 특성을 뜻한다.

(2) '패러디'는 원작의 내용과 소재를 가져와 새로운 의미를 더해 재창작하는 것이다. 원작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패러디'가 알맞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알맞지 않다.

4 '재구성'은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을 뜻한다. 원작이나 원본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

03 산문 ②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0쪽

1 (1) ㉡ (2) ㉠ (3) ㉢
2 (1) 몽자류 소설 (2) 우화 소설, 사회 소설
3 (1) × (2) ○
4 예시 문장 「춘향전」은 시련을 이겨 낸 두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애정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2 (1) '몽자류 소설'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른 삶을 경험한 뒤, 꿈에서 깨어나 인생의 무상함이나 깨달음을 얻는 구조의 소설을 뜻한다. 「구운몽」은 주인공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하였음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몽자류 소설'에 해당한다.
(2) '우화 소설'은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하거나 교훈을 전달하는 소설을 뜻하며, '사회 소설'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을 뜻한다. 「토끼전」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우화 소설'이며, 이기적인 지배층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소설'로 볼 수 있다.

3 (1) '환몽 구조'는 '꿈 – 현실 – 꿈'이 아니라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로 나타난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가(입몽) 새로운 삶을 체험한 뒤, 다시 꿈에서 깨어나(각몽) 현실로 돌아오며 깨달음을 얻는 구조이다.

더 알아두기 환몽 구조의 흐름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환몽 구조가 자주 활용된다. 환몽 구조는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망을 꿈속에서 이루고, 꿈에서 깨어난 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입몽	현실에서 명예·부·사랑 등의 세속적 욕망과 신분적 한계, 삶의 번뇌와 결핍을 경험함. →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결핍을 계기로 꿈속 세계에 진입함.
꿈속 체험	꿈속에서 새로운 인물이나 신분으로 변모함. →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공명, 사랑, 부귀 등의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고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삶의 절정을 경험함.
각몽	꿈에서 깨어나 꿈속의 화려한 삶이 일장춘몽에 불과했음을 깨달음. → 세속적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욕망을 초월하며 정신적 성숙을 이룸.

4 고전 소설은 중심 사건이나 구성 방식, 인물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동물을 통해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우화 소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가정 소설, 남녀 간의 사랑과 시련을 다루는 애정 소설, 꿈속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몽자류 소설, 비범한 영웅의 일대기와 활약을 다루는 영웅 소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사회 소설,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된 판소리계 소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 갈래를 골라 작품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떠올린 뒤, 그 갈래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문장을 쓴다.

2회

본문 033쪽

1 (1) 권선징악 (2) 우의적 (3) 우연성
2 (1) × (2) ○
3 ③
4 ⑤

2 (1) '실제의 사실이나 상태가 나타나 있는 세계', '경험의 범위 안에 있는 세계' 등은 '현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초월계'는 이와 반대로, 천상계나 용궁처럼 인간의 실제 경험 범위를 벗어난 초현실적인 세계를 가리킨다.

3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나타나 원한을 호소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현실적 사건으로, 고전 소설의 '전기성(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성질)'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교훈성'은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성질을 뜻하므로 〈보기〉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❷ '보편성'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두루 통하는 성질이므로 〈보기〉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❹ '해학성'은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성질을 뜻하므로 〈보기〉처럼 원한을 호소하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❺ '사실성'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다루는 성질이므로, 〈보기〉와 같이 죽은 여인이 나타나는 초현실적 사건과는 맞지 않는다.

4 아우 덕룡은 착한 행실로 복을 받고, 형 덕만은 못된 행실로 벌을 받는다. 선행에는 복이, 악행에는 벌이 따른다는 구조를 통해 주제가 '인과응보(因果應報)'임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는 인물이 결심을 세웠다가 얼마 못 가 포기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야기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❷ '일석이조(一石二鳥)'는 돌 하나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가지 행동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은 선행과 악행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내용이지,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내용이 아니므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인생무상(人生無常)'은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은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따라 합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야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❹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덕만이 재산을 잃은 것은 사소한 것을 욕심내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못된 행실 전반에 대한 벌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인과응보'와 비슷한 다양한 표현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 바른길(정당한 이치)로 돌아감.
자승자박(自繩自縛)	스스로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옭아매거나 망침.
뿌린 대로 거두다	자신이 노력하거나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대로 맞이함.
제 꾀에 제가 넘어가다	남을 속이려다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음.

04 산문 ③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6쪽

1 (1) ㉡ (2) ㉠
2 ⑤
3 ③
4 (예시 문장) 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하나의 표로 압축해 정리하였다.

2 '구체적'은 내용이나 모습이 뚜렷하고 분명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 '막연하다'는 내용이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막연하고 구체적인 희망'은 서로 모순되어 어색하다.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⑤의 '구체적인'을 '추상적인'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노트

❶ 주인공의 감정이 행동과 대화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므로 '구체적'의 사용은 적절하다.

❷ '추상적'은 구체적인 형태 없이 개념이나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 '자유'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 개념이므로 '추상적'의 사용은 적절하다.

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감정이지만, 이를 인물의 미소라는 뚜렷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의 사용은 적절하다.

❹ 주인공의 심리를 날씨와 색깔이라는 뚜렷한 대상에 빗대어 묘사했으므로 '구체적'의 사용은 적절하다.

3 밑줄 친 부분에서 글쓴이는 계곡 물소리를 '세상의 소문과 수군거림을 지워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물소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 변형하여 나타낸 것으로, '주관적 변용'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압축'은 내용이나 생각을 간결하게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밑줄 친 부분은 화자의 심리를 풀어서 서술한 문장으로, 내용을 압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❷ '변주'는 하나의 주제나 소재를 여러 형태로 바꾸어 가며 반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밑줄 친 부분에는 이러한 반복이나 변형된 되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❹ '관습적 표현'은 오랫동안 널리 쓰여 굳어진 표현을 말한다. 밑줄 친 부분은 물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어 세상의 소문과 수군거림을 지워 버리는 것처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개성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습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❺ '감각의 전이'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밑줄 친 부분은 '물소리', '귓속으로 파고들어'처럼 청각적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감각의 전이로 보기 어렵다.

4 '압축'은 글이나 문장 등의 길이를 줄여 짧게 하는 것을 뜻한다. 제시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무엇을 어떻게 압축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완결된 문장을 쓴다.

2회

본문 039쪽

1 (1) 아니리 (2) 발림
2 (1) ○ (2) ×
3 (1) 서술자의 개입 (2) 장면의 극대화
4 ⑤

2 (2) '추임새'의 사전적 의미는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이다.

3 (1)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직접 끼어들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 느낌, 판단을 드러내거나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 방식을 뜻한다. 「춘향전」의 "저 사령 거동 보소."는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직접 끼어들어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이므로 '서술자의 개입'이 알맞다.
(2) '장면의 극대화'는 서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특정 장면을 확장하거나 여러 요소를 길게 나열하여 흥미와 감흥을 고조시키는 표현 방식을 뜻한다. 「흥부가」에서 흥부 내외가 박을 타는 장면을 여러 가지 재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으로 길게 나열한 것은 해당 장면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면의 극대화'가 알맞다.

4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랴,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창'은 판소리에서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뜻한다.

❷ '발림'은 판소리에서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뜻한다.

❸ '아니리'는 판소리에서 가락 없이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말을 뜻한다.

❹ '장면의 극대화'는 특정 장면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더 알아두기 편집자적 논평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평가를 직접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다. 표현상으로는 설의적 표현이나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인물의 처지와 사건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독자나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 문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소리꾼이 청중 앞에서 사설을 풀어내는 판소리의 공연성과 구비성을 계승한 것으로, 문장에 현장감과 생동감, 리듬감을 더한다. 문학적으로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함으로써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몰입을 유도한다. 또한 비극적이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해학적 논평을 덧붙여 긴장을 완화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나아가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 방향을 드러내어 독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편집자적 논평의 예〉

- 「흥부전」: 놀부의 심술을 나열한 뒤 "어찌 벌을 받지 않으리오."라고 말하며 직접 비판함.
- 「토끼전」: 토끼에게 속은 자라의 어리석음을 "미련한 자라야."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풍자함.
- 「심청전」: 심청이가 인당수로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 "가련하다, 심청이여."라고 말하며 연민을 표현함.
- 「춘향전」: 이몽룡과 춘향의 이별 장면에서 "이런 정경을 어찌 다 그려내랴."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냄.

05 극과 감상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42쪽

1 (1) × (2) × (3) ○
2 (1) 시퀀스 (2) 몽타주
3 ②
4 예시 문장 점순이는 감자를 거절한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속 장난을 걸었다. '나'는 그 행동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순이의 마음에는 관심과 서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김유정, 「동백꽃」)

1 (1)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것을 '인서트'라고 한다. '오버랩'은 앞 화면이 끝나기 전에 뒤 화면이 포개어지면서 장면을 전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2)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페이드인',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페이드아웃'이라고 한다.

2 (1) '시퀀스'는 하나의 이야기 단위를 이루는 몇 개의 장면(신)이 모여 구성된 단락을 뜻한다. 그리고 '페이드인'은 화면이 어두운 상태에서 점차 밝아지며 장면이 나타나는 편집 기법이다. 역동적인 장면들이 모여 구성된 단위를 가리키므로 '시퀀스'가 알맞다.
(2) '인서트'는 장면 사이에 특정 사물이나 장면을 짧게 삽입하여 정보를 보충하거나 강조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편집하는 것을 뜻한다. 서로 유사한 화면들을 연결하여 주제를 전달한다는 설명이므로 '몽타주'가 알맞다.

3 앞부분에 '악보 여백에 빼곡히 적힌 자신의 손글씨 메모'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그 메모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메모의 내용이 관객에게 보이도록 악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화면에 보여 주는 '클로즈업' 기법이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오버랩'은 한 장면이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겹쳐 나타나는 기법으로, 장면 전환이나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쓰인다. 제시된 장면은 다른 장면과 겹쳐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❸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려주는 설명이나 해설의 목소리를 말한다. 제시된 장면은 악보에 적힌 글씨를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것이지 목소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❹ '몽타주'는 따로 촬영한 화면들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편집 기법이다. 제시된 장면은 여러 화면의 연결이 아니라 한 대상을 확대해 보여 주는 것이므로 맞지 않는다.
❺ '페이드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사라지는 기법으로, 장면의 끝이나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쓰인다. 제시된 장면에는 화면이 어두워지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맞지 않는다.

4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물의 대사를 직접 쓰기보다, 장면의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듯 표현해야 한다.

2회

본문 045쪽

1 (1) 내면화 (2) 감상
2 (1) 독자 (2) 절대론적 (3) 외재적
3 (1) ○ (2) ○ (3) ×
4 ③

1 (1) '내면화'는 어떤 규범이나 가치, 생각 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이 규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내면화'가 알맞다.
(2) '감상'은 예술 작품 등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지은이가 관심을 가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즐기며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감상'이 알맞다.

3 (3)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의 언어적 특징, 갈등 구조, 인물의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품의 작가, 당대의 사회 현실, 독자와의 영향 관계 등은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4 ㉢은 내재적 관점과 관련 있고 작가·현실·독자와 관계를 맺는 중심 대상이므로 '작품'이 들어가야 한다.

종합 문제 01~05

본문 046~049쪽

01 ④	02 ③	03 ⑤	04 환몽 구조
05 인과성	06 모티프	07 권선징악	08 비현실성
09 필연성	10 우연성	수능형 ④	11 우연성
12 필연성	13 (1) ㉠ (2) ㉢ (3) ㉡		14 ④
15 ②	16 클로즈업	17 몽타주	18 내레이션
19 ①	20 ⑤		

01 ㉣ '유기적'은 생물체처럼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을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알맞지 않다.

02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의 어조로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③은 슬픔을 감탄의 어조로 드러내므로 영탄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오답 노트
❶ 감탄사나 감탄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한 문장이므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❷ 인물의 행동을 평이하게 서술했을 뿐 감탄사나 감탄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❹ '봄이 왔다'라는 말이 거듭 쓰인 반복법에 해당하며, 감탄사나 감탄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❺ 감정이 배제된 상태를 서술한 문장으로, 감탄사나 감탄의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03 ⓑ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 객관적 상관물은 인물이나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말한다. ㄷ의 '폭풍우'는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ㄹ의 '진달래꽃'은 이별의 슬픔과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므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ㄱ의 '청산'은 이상적 공간의 상징이고, ㄴ의 '낡은 수첩'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소재이므로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가)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영웅으로 활약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깨닫는 이야기이므로,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로 전개되는 '환몽 구조(㉠)'에 해당한다.

05 (가)에서 사건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작은 선택 하나가 결말을 결정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어진 '인과성(㉡)'을 바탕으로 전개됨을 보여 준다.

06 (나)에서 작가가 선악의 대립 끝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생각을 작품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했으므로, 이는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곧 '모티프(㉢)'에 해당한다.

07 (나)에서 선한 인물은 복을 받고 악한 인물은 벌을 받는 구조라고 했으므로, 이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구조에 해당한다.

08 (나)에서 마법과 예언이 결말을 이끈다고 했으므로,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성질, 즉 '비현실성(㉤)'이 작품 전반에 강조됨을 보여 준다.

09 인물의 욕심이 갈등과 파멸의 원인이 되어 결과로 이어지므로 '필연성'에 해당한다.

10 조력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나 동기 없이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우연성'에 해당한다.

수능형 김원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지하국에 갇히는 위기를 겪지만, 신이한 공간에서 우연히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얻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이는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전개이므로, 우연적 사건 전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1 우연히 얻은 편지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원인이나 동기 없이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우연성'에 해당한다.

12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사건이므로 '필연성'에 해당한다.

13 (1) '창(唱)'은 판소리를 가락에 맞추어 높은 소리로 부름. 또는 그런 노랫소리이다.
(2) '아니리'는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말이다.
(3) '발림'은 판소리에서,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이다.

14 인물의 행동을 논평하는 것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에서 어떤 대목이나 장면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편집자적 논평'은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②는 심 봉사가 직접 한 말이므로 '편집자적 논평'의 예로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❸, ❹, ❺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16 "주인공이 옛 사진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클로즈업으로 그의 눈빛을 강조한다."에서, 인물의 눈빛(신체 일부)을 확대하여 촬영한 기법을 뜻하는 '클로즈업'을 확인할 수 있다.

17 "감독은 몽타주 편집을 활용하여 도시의 화려함과 빈민가의 고달픔을 번갈아 배치하고"에서, 따로 촬영한 화면들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편집하는 기법을 뜻하는 '몽타주'를 확인할 수 있다.

18 "마지막에는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의 독백이 깔리며 관객에게 여운을 남긴다."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용을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기법을 뜻하는 '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의 '신(scene)'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면 단위이고, ㉡의 '시퀀스'는 여러 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 흐름을 이루는 구성단위이다. 따라서 ㉠과 ㉡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위가 아니라, ㉠이 모여 ㉡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20 ⓐ는 작품의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감상한 것이므로 절대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는 작품이 관객에게 주는 감동과 깨달음에 주목한 것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와 ⓓ를 모두 작품 외부의 요인에 주목하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설명한 것은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작품 감상의 관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해석된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상의 초점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학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의 요소(구성, 표현, 문체 등)에 주목하여 작품 내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임.
외재적 관점	• 표현론적 관점: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이 반영된 결과물로 보고, 작가와 관련지어 감상하는 관점임. • 반영론적 관점: 작품이 창작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작품과 현실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하는 관점임. •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 교훈, 즐거움 등에 주목하여,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임.

문학 주제별 어휘

06 자연과 계절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58쪽

1 (1) ㉠ (2) ㉢ (3) ㉡
2 (1) 청강 (2) 광명 (3) 눈서리
3 (1) ○ (2) ×
4 ②

3 (2) 고전 시가에서 '솔(소나무)'은 지조와 절개를, '눈서리'는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시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4 시구의 내용으로 보아 1행의 빈칸에는 '높고 큰 산'을 뜻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2행에서 걱정이 이 시어와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크고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닌 '태산'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청강'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뜻하며, 고전 시가에서는 생명력, 정화, 생성 등을 의미하는 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❸ '백설'은 흰 눈을 뜻하며, 고전 시가에서는 순수함이나 지조, 혹은 혼란스럽고 시련이 많은 세태를 의미하는 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❹ '산촌'은 산속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고전 시가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은둔의 삶이나 안분지족(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만족하며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태도)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❺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고전 시가에서는 굳은 의지와 절개를 의미하는 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2회

본문 061쪽

1 (1) 적설 (2) 삭풍 (3) 녹음
2 (1) 추풍낙엽 (2) 이화우
3 ①
4 (예시 문장) 봄바람에 도화 잎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새 냇물 위로 분홍빛 꽃잎이 가득 흘러 내려갔다.

2 (1) '추풍낙엽'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뜻으로, 어떤 세력이나 대상이 힘없이 잇따라 무너지는 모습을 비유한다.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상황이므로 '추풍낙엽'이 알맞다.
(2) '이화우'는 배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뜻한다. 달빛 아래 향긋한 꽃잎이 가득 내리는 상황이므로 '이화우'가 알맞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052~053쪽

01 일취월장 **02** 십벌지목 **03** 호시탐탐 **04** 각고면려
05 천재일우 **06** 우공이산 **07** 삼일 **08** 칠, 팔
09 ㉢ **10** ㉤ **11** ㉠
12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듯이, 여러 과목으로 자꾸 바꾸기보다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01~05

일	십	벌	지	목	각
취	번	뇌	진	장	고
월	호	건	거	정	면
장	종	시	석	우	려
래	설	의	탐	지	공
천	재	일	우	탐	거

06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12 만화 속 남학생은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며 한 과목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과목에 욕심내기보다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이때 활용하기 알맞은 속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이다.



3 앞뒤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가을밤을 배경으로 울음소리를 내는 존재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을밤에 우는 귀뚜라미를 이르는 옛말인 '실솔'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❷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흔히 봄바람을 가리킨다.
❸ '훈풍'은 초여름에 부는 훈훈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이르는 말이다.
❹ '황운'은 누렇게 익은 곡식이 넓게 펼쳐진 모습을 구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❺ '이화우'는 배꽃이 비처럼 흩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4 '도화(桃花)'는 복숭아나무의 꽃, 즉 복숭아꽃을 뜻한다. 봄바람에 도화의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풍경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07 옛 사람들의 삶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64쪽

1 (1) 대청 (2) 사랑방 (3) 행랑채
2 (1) ㉡ (2) ㉠
3 (1) ○ (2) ×
4 ③

2 (1) 혼인 후 조정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의 사위, 즉 공주와 혼인한 남자를 이르는 '부마'가 알맞다.
(2) 적자와 달리 관직 진출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르는 '서자'가 알맞다.

3 (2) 장수와 병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장졸'이다. '대장부'는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센, 씩씩한 사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4 문맥상 빈칸에는 아씨를 모시는 역할을 하는 자를 이르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곁에서 시중을 드는 여자 하인'을 이르는 말인 '시비'가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부마'는 임금의 사위를 이르는 말이다.
❷ '소저'는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이다.
❹ '낭자'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❺ '규수'는 남의 집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또는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2회 본문 067쪽

1 (1) × (2) × (3) ○
2 (1) 책망 (2) 간계
3 ②
4 (예시 문장) 불측한 계획을 꾸미던 자는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포박되었다.

1 (1)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모함'이라고 한다. '가책'은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적'은 자기 나라나 민족, 통치자를 반역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뜻하는 말은 '탐관오리'이다.

2 (1) 귀한 도자기를 깬 동생이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이므로,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행위를 뜻하는 '책망'이 알맞다.
(2) 도적의 무리가 관군을 따돌리기 위해 꾀를 꾸몄다는 내용이므로, 간사한 꾀나 계략을 뜻하는 '간계'가 알맞다.

3 제시된 상황에서는 최 씨가 무관 이 씨를 해치기 위해 거짓 밀서를 꾸며 임금에게 올렸다. '모해'는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므로, 이 상황을 묘사하기에 가장 알맞다.

4 '포박'은 사람을 잡아 묶거나, 사람을 묶는 데 쓰는 줄을 뜻한다. '불측'은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음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괘씸하고 엉큼함을 뜻한다. 제시된 예에서 '불측'은 생각이나 행동이 괘씸하고 엉큼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08 옛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0쪽

1 (1) 용맹 (2) 아량 (3) 염치
2 (1) 간사한/간사하게 (2) 방자한 (3) 구차한/구차하게
3 (1) 의로운 (2) 교만
4 (예시 문장) 나는 남들보다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비범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다.

2 (1) '간사하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태도가 있다는 뜻이다. '간사한 꾀를 꾸몄다'처럼 '꾀'를 꾸밀 수도 있고, '간사하게 꾀를 꾸몄다'처럼 꾀를 꾸민 방식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간사한', '간사하게' 두 표현 모두 알맞다.

(2) '방자하다'는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이다. '태도'를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방자한'이 알맞다.
(3) '구차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궁색하다는 뜻이다. '구차한 변명'처럼 '변명'을 꾸밀 수도 있고, '구차하게 변명만 늘어놓았다'처럼 변명한 방식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구차한', '구차하게' 두 표현 모두 알맞다.

3 (1) '의롭다'는 정의를 위한 씩씩한 기상이 있다는 뜻이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의 죽음은 옳은 뜻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므로 '의로운 죽음'이 문맥에 알맞다. '비상하다'는 놀랍거나 뛰어남, 또는 예사롭지 않고 특별함을 뜻하는 말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나타내는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 '교만하다'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를 뜻한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일찍 벼슬에 오른 뒤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야 하므로, 지위가 높아지며 건방져진 태도를 뜻하는 '교만'이 문맥에 알맞다.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부족하여 딱하고 옹색하다는 뜻으로, 벼슬에 올라 형편이 나아진 상황과 반대된다.

4 '비범하다'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를 뜻한다. 자신의 장점이나 재능 가운데 남들과 구별되는 점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2회

본문 073쪽

1 (1) 거동 (2) 위의 (3) 가관
2 (1) 종적 (2) 하직
3 (1) 황망한 (2) 심산 (3) 굽실거리며
4 ②

3 (1) '황망하다'는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다를 뜻한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말을 더듬는 상황이므로 '황망한 표정'이 문맥에 알맞다. '황폐하다'는 땅이나 건물이 거칠고 못 쓰게 되거나, 정신 또는 생활이 메마르고 거칠어지다를 뜻하는 말로,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움을 나타내는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 '심산'은 마음속으로 하는 궁리나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으로 세운 속셈을 나타내야 하므로 '기대어 볼 심산'이 문맥에 알맞다. '거동'은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나 태도를 뜻하는 말로, 마음속 계획을 나타내는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3) '굽실거리다'는 남에게 굽히어 비굴하게 행동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흥부가 형님에게 쌀을 빌리기 위해 몸을 낮추어 사정하는 모습이므로 '굽실거리며 애원하였다'가 문맥에 알맞다. '속닥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다를 뜻하는 말로, 형님에게 애원하는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4 '결박'은 몸이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음을 뜻한다. 죄인을 묶어 끌고 가고, 밧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므로 '결박'이 알맞다.

09 행동과 말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6쪽

1 (1) 뒤척이다 (2) 아랑곳없다
2 (1) 뇌고 (2) 스칠 (3) 아물거리는
3 (1) ○ (2) ×
4 ⑤

2 (1)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같은 말을 거듭했다는 내용이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는 뜻의 '뇌고'가 알맞다.
(2) 바람이 뺨에 살짝 닿았다가 지나가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를 뜻하는 '스칠'이 알맞다.
(3) 긴 항해에 지쳐 눈앞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배의 키를 놓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무엇이 희미하게 보이다 말다 하는 것을 뜻하는 '아물거리는'이 알맞다.

3 (2) '선회하다'는 교통수단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말이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회하다'는 둘레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뜻하는 말로, 비행기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사람이나 매와 같은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4 첫째 문장의 '살피다'는 상대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뜻이고, 둘째 문장의 '짐작하다'는 친구의 속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셋째 문장의 '세다'는 남은 날짜의 수를 헤아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담긴 공통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헤아리다'이다.

오답노트
❶ '구차하다'는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또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❷ '우러르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받들다 또는 위를 향해 고개를 들다를 뜻한다.
❸ '다급하다'는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하다를 뜻한다.
❹ '비범하다'는 평범한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를 뜻한다.

2회

본문 079쪽

1 (1) ㉡ (2) ㉢ (3) ㉠
2 (1) 혹평 (2) 실토 (3) 피력
3 ④
4 예시 문장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하려면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 (1) 준비가 부족한 발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내용이므로, 가혹하게 비평함을 뜻하는 '혹평'이 알맞다.

(2) 끝까지 모른 척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는 내용이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을 말함을 뜻하는 '실토'가 알맞다.
(3)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어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생각하는 바를 털어놓고 말함을 뜻하는 '피력'이 알맞다.

3 민호는 상대방에게 이유를 계속 캐묻고 대답을 재촉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이를 표현하는 단어로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을 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닦달하다'가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어르다'는 어떤 일을 하도록 사람을 구슬리거나, 몸을 움직여 아이를 달래고 기쁘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다그치는 민호의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❷ '달래다'는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어루만져 위로하거나, 잘 타일러 진정시키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대방에게 계속 캐물으며 몰아붙이는 민호의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❸ '우러르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받들거나, 위를 향해 고개를 드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존경이나 시선의 방향과 관련된 말로, 상대방을 다그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❺ '넋두리하다'는 불만을 억울해하며 말로 늘어놓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자신의 답답함을 스스로 하소연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대답을 요구하는 민호의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4 '중언부언하다'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뜻한다.

10 분위기와 느낌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82쪽

1 (1) 눈시울 (2) 이상 (3) 애환
2 (1) ㉢ (2) ㉡ (3) ㉠
3 ④
4 ①

1 (1)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다는 내용이므로, 눈언저리의 속눈썹이 난 곳을 뜻하는 '눈시울'이 알맞다.
(2) 모두가 공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는 내용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나 최고의 목표를 뜻하는 '이상'이 알맞다.
(3)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을 보며 지난 세월의 기쁘고 슬펐던 사연을 조용히 들려주셨다는 내용이므로,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애환'이 알맞다.

2 (1) '메이다'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거나 임무를 맡게 된다는 뜻이다. 임무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임무에 메여'가 알맞다.
(2) '나무라다'는 잘못을 꾸짖거나 흠을 지적한다는 뜻이다. 그의 평소 행실에는 꾸짖을 만한 데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나무랄 데가 전혀 없다'가 알맞다.
(3) '고단하다'는 몸이나 마음이 몹시 피로하고 힘들다는 뜻이다. 유난히 길고 힘겨운 하루가 저물어 갔다는 내용이므로 '고단한 하루'가 알맞다.

3 '해쓱하다'는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는 뜻이다. '말쑥하다'는 말끔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므로, '해쓱하다'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오답 노트

❶, ❷, ❸, ❺ 모두 '해쓱하다'와 같이 얼굴에 핏기가 없거나 아프고 지쳐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관련된 단어이다.

4 '섧다'는 원통하고 슬프다는 뜻이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낸 ①이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❷ 홀가분한 발걸음, ❸ 짜증 나는 모습, ❹ 피곤한 몸, ❺ 막막한 마음은 모두 '섧다'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2회

본문 085쪽

1 (1) 고즈넉하여 (2) 을씨년스러워 (3) 애잔하여
2 (1) 북새 (2) 이변
3 ②
4 (예시 문장) 갑자기 천둥이 치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1 (1) 안개가 깔린 이른 아침의 산사가 조용하고 아늑하여 마음이 차분해지는 분위기이므로, 고요하고 아늑하다는 뜻의 '고즈넉하여'가 알맞다.
(2) 찬바람이 불고 하늘이 잔뜩 흐린 날, 골목길의 황량한 분위기를 나타내므로,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는 뜻의 '을씨년스러워'가 알맞다.
(3)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는 내용이므로, 애처롭고 애틋하다는 뜻의 '애잔하여'가 알맞다.

2 (1) 장이 서는 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떠들썩한 상황이므로,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을 뜻하는 '북새'가 알맞다. '틈새'는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뜻한다.
(2)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 일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태나 사고를 뜻하는 '이변'이 알맞다. '불변'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3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는 예전에는 북적였던 집이 할머니 혼자 남아 고요하고 쓸쓸해진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고요하고 쓸쓸하게'를 뜻하는 '적막하게'가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긴박하게'는 매우 다급하고 절박하게를 뜻하는 말이다. 위기감이나 급박함을 나타내는 말로, 할머니 혼자 계신 고요하고 쓸쓸한 집 안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❸ '다급하게'는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하게를 뜻하는 말이다. 이 역시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고요하고 쓸쓸한 집안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

❹ '안전하게'는 위험이 없이 편안하게를 뜻하는 말이다. 위험 여부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이 줄어 쓸쓸해진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맥과는 관련이 없다.

❺ '아늑하게'는 포근하게 감싸안기듯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이 있게를 뜻하는 말이다. 고요하고 쓸쓸한 집 안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4 '혼비백산'은 혼과 넋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인물이 크게 놀라 당황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종합 문제 06~10

본문 086~089쪽

01 ④	02 ④	수능형 ①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만물
08 북새	09 삭풍	10 태산	11 ④
12 혼비백산	13 ④	14 ①	15 부마
16 시비	17 소저	18 서자	19 ⑤
20 ①			

01 '매화'는 한겨울 눈서리 속에서도 홀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으로, 이 글에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 정신과 꼭 닮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화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이다.

02 '낙목한천(落木寒天)'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또는 그런 계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답 노트

❶ 물놀이 풍경, ❷ 새싹이 돋는 풍경, ❸ 늦가을 풍경, ❺ 푸른 잎이 무성한 숲은 모두 겨울 풍경과 거리가 있다.

수능형 '황혼'은 해가 질 무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아니다.

오답 노트

❷ '녹음(綠陰)'은 잎이 우거진 나무의 그늘을 뜻하는 말로, 나무가 무성해지는 여름철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❸ '동풍(東風)'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흔히 봄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❹ '이화우(梨花雨)'는 배꽃이 비처럼 흩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배꽃이 피고 지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❺ '추풍낙엽(秋風落葉)'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03 이 글에서 '이상'은 선비들이 삶에서 추구하고자 한 바람직한 상태나 생각을 뜻한다. 따라서 문맥상 '가치'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장 알맞다.

04 이 글은 봄, 가을, 겨울의 모습을 차례로 제시하며 계절이 순환하듯 시련이 지나면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글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배우는 삶의 태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봄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계절의 순환을 보여 주기 위해 배경을 서술한 것일 뿐, 이 글이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❸ '겨울이 길고 혹독할수록 봄의 찬란함은 더욱 빛난다'는 표현은 시련을 견뎌 낸 뒤에 얻을 수 있는 결실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봄과 겨울의 풍경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지 설명하려는 내용이 아니다.

❹ 이 글이 실제 등산을 할 때에 필요한 끈기와 노력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❺ 이 글은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 현상에서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관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다.

05 ㉮는 가을바람이 불자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상황이다. '추풍낙엽(秋風落葉)'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뜻하므로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춘하추동(春夏秋冬)'은 봄·여름·가을·겨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계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❸ '풍전등화(風前燈火)'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❹ '사시사철(四時詞—)'은 사철 내내, 즉 일 년 내내를 이르는 말이다.

❺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곤란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06 ㉠의 '경황(驚惶)'은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함을 뜻한다. ①의 '경황(景況)'은 정신적·시간적인 여유나 형편을 뜻하므로 ㉠의 의미와 다르다.

더 알아두기 '경황(驚惶)'과 '경황(景況)'

경황 (놀랄 驚 두려워할 惶)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함. 예 너무 경황 중에 뛰어오느라 어쩔 수가 없었다.
경황 (경치 景 상황 況)	정신적·시간적인 여유나 형편. 예 일이 많아서 점심 먹을 경황도 없다.

07 봄을 맞아 생명력을 되찾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만물(ⓐ)'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8 봄맞이를 준비하며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을 뜻하는 '북새(ⓑ)'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9 겨울철 들판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바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뜻하는 '삭풍(ⓒ)'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10 오르기 힘겨운 크고 높은 산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높고 큰 산'을 뜻하는 '태산(ⓓ)'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11 이 글은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와 기묘한 발자국, 사라진 나그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적막하다', '음산하다', '을씨년스럽다'는 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또한 마지막에 아이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쓰러진 나그네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애잔하다'도 알맞다. 반면 '고즈넉하다'는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나타내므로, 불안하고 스산한 이 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12 산속 마을에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은 상태를 이른다.

13 '종적'은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안부나 근황에 관한 정보'는 '소식'의 의미에 해당한다.

14 '실토하다'와 '이실직고하다'는 모두 숨기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비슷하다. ①의 '피력하다(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어 말하다)'와 '토로하다(마음속 생각이나 감정을 털어놓다)'도 서로 의미가 비슷하다.

15 "한때 부마의 집안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대감 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었다."에서, 임금의 사위를 뜻하는 말인 '부마'를 확인할 수 있다.

16 "안채 마당을 쓸던 시비 옥련은 대청에 모여 앉은 식구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에서, 곁에서 시중을 드는 여자 하인을 뜻하는 말인 '시비'를 확인할 수 있다.

17 "대감은 소저를 바라보며 엄하게 책망했다."에서,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인 '소저'를 확인할 수 있다.

18 "그때 대감의 서자인 이도가 급히 마당으로 들어섰다."에서, 양반과 신분이 낮은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뜻하는 말인 '서자'를 확인할 수 있다.

19 '황망한'은 마음이 급하고 당황하여 허둥대는 상태를 뜻한다. 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황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는 상황이므로 '황망한'이 바르게 쓰였다.

오답노트

❶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기쁨에 잠긴 상황이므로, '황망한'과 어울리지 않는다.

❷ 좋은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는 상황이므로, '황망한'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퇴원하여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황이므로, '황망한'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❹ 친구를 무시하며 고개를 치켜드는 모습은 '거만한' 태도에 해당하므로 '황망한'과 어울리지 않는다.

20 대감은 손을 들어 옥련의 말을 막으며, 옥련에게 '중언부언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이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어질 말로는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하라는 뜻의 '핵심만 말하거라'가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❷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라는 뜻이다. 대감은 요점을 명확히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돌려서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와 어울리지 않는다.

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감은 진실을 알고자 옥련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예 말을 막는 이 표현은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❹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다. 이는 오히려 옥련이 보고 들은 일을 장황하게 나열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중언부언하지 말고'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❺ 한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설명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라는 앞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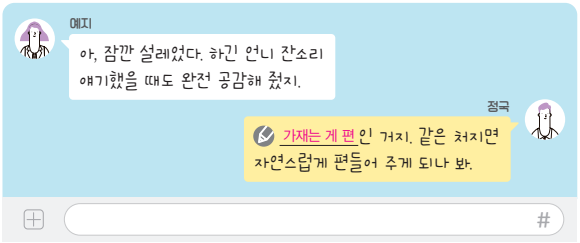
본문 092~093쪽

01 풍비박산	02 용호상박	03 고군분투	04 파죽지세
05 산전수전	06 약육강식	07 ㉤	08 ㉣
09 ㉡	10 ㉠	11 ㉢	12 가재는 게 편

01~06

군	고	존	오	풍	비	박	산
거	군	비	산	이	하	봉	수
쟁	분	용	호	상	박	분	견
소	투	악	선	하	후	사	마
낙	생	광	간	약	파	공	불
산	전	수	전	죽	육	허	로
자	화	선	지	골	지	강	분
대	한	세	재	락	중	육	식

12



'가재는 게 편'이란 속담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뜻한다.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과 같은 막내 처지인 준서가 예지의 편을 들어 준다는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독서 학습 어휘

11 논리와 판단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98쪽

1 (1) ㉢ (2) ㉡ (3) ㉠
2 (1) 범 (2) 구축
3 (1) 과실 (2) 패러다임
4 ②

3 (1) 팀이 무언가를 인정하고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는 내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고쳐 나가는 상황이므로,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허물이나 잘못을 뜻하는 '과실(過失)'이 알맞다.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뜻하는 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2) 사회가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내용이므로,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인식의 체계, 또는 특정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틀을 뜻하는 '패러다임(paradigm)'이 알맞다. '패러독스(paradox)'는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이나 논리, 곧 '역설'을 뜻하는 말이므로 사고 체계의 전환을 나타내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4 '모순'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한다. 창과 방패에 대한 상인의 두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과 ㉡의 관계는 '모순'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기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나 구조, 또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뜻한다. 어떤 두 대상이 서로 어긋나는 관계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❸ '구축'은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을 뜻하므로, ㉠과 ㉡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알맞지 않다.

❹ '입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뜻하므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두 말을 설명하지 못한다.

❺ '확산'은 어떤 현상이나 생각 등이 널리 퍼지는 것을 뜻하므로, ㉠과 ㉡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더 알아두기 패러독스(paradox)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의미나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이나 생각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역설(逆說)'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서두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돌아가라고 하여 모순처럼 보이지만, 급할수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겉보기의 모순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역설은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내면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실제 의도한 속뜻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반어(irony)와 구분된다. 따라서 작품 속 역설적 표현을 감상할 때에는 표면적인 모순 뒤에 숨겨진 주제 의식과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회

본문 101쪽

1 (1) 합리적 (2) 복합적 (3) 무비판적
2 ④
3 ⑤
4 (예시 문장) 한쪽 생각에만 치우치지 말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어.

1 (1) 여러 자료를 비교한 뒤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므로,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뜻하는 '합리적'이 알맞다.
(2) 인구 증가, 도로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내용이므로,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겹치거나 합쳐져 있는 것을 뜻하는 '복합적'이 알맞다.
(3)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무비판적'이 알맞다.

2 '척도'는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의거할 기준을 뜻한다. 행복의 기준, 작품 평가의 기준, 실력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세 문장의 빈칸에는 모두 '척도'가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기초'는 사물이나 일의 기본이 되는 것을 뜻하므로 '기준'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❷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일부를 뜻하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❸ '쟁점'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뜻하므로 '판단 기준'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❺ '표면'은 겉으로 드러난 면을 뜻하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3 ㉤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바라보았을 때 문제의 근본을 놓칠 수 있다는 문맥이 드러나야 하므로,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긴다는 뜻의 '간과하다'의 활용형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논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한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문맥에는 알맞지 않다.

4 '치우치다'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다를 뜻한다. 제시된 상황에서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파악하고, '치우치다'를 활용하여 조언하는 문장을 써 본다.

12 사회적 관계와 연대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04쪽

1 (1) ㉢ (2) ㉠ (3) ㉡
2 (1) 우려/염려 (2) 결부
3 (1) 간주 (2) 무력
4 ④

1 (1) '파급'은 어떤 일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친다는 뜻이다. ㉢은 개편된 정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므로 '파급'이 사용되기에 알맞다.
(2) '불가분'은 서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므로 '불가분'이 사용되기에 알맞다.
(3) '이분법'은 하나를 둘로 나누어 사물을 규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은 적이 아니면 동지라는 식으로 둘로만 나누어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고립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분법'이 사용되기에 알맞다.

3 (1) 사회가 특정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는 문맥이므로, 상태·모양·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김을 뜻하는 '간주'가 알맞다.
(2) 갈등을 힘으로 눌러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는 문맥이므로, 군사상의 힘 또는 사람을 제압할 만한 힘을 뜻하는 '무력'이 알맞다.

4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면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커피와 건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상관'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뜻하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공생'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사는 것을 뜻한다. 커피는 섭취량에 따라 건강에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으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❷ '대립'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을 뜻한다. 커피와 건강은 완전히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❸ '배척'은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을 뜻한다. 제시된 글은 카페인의 양면성을 다루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❺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힘을 뜻한다. 커피와 건강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2회

본문 107쪽

1 (1) ○ (2) × (3) ○
2 (1) 동의 (2) 배제 (3) 상충
3 ②
4 (예시 문장)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수록 조직 전체의 역량도 증진된다.

2 (1) 망설이던 그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제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그 의견에 찬성함을 뜻하는 '동의'가 알맞다.
(2) 참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물리치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뜻하는 '배제'가 알맞다.
(3) 환경 보호와 개발 이익이 서로 어긋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내용이므로,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을 뜻하는 '상충'이 알맞다.

3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처지였지만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하였다. '연대'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므로 이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

오답 노트

❶ '고립'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하므로, 서로 힘을 모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

❸ '단절'은 이어져 있던 관계나 흐름이 끊어짐을 뜻하므로,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과 맞지 않는다.

❹ '방심'은 마음을 놓아 경계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힘을 합쳐 복구 작업에 나선 상황과 맞지 않는다.

❺ '분열'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뉨을 뜻하므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 상황과 반대된다.

4 '구성원'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협력적'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증진하다'는 점점 더 나아지거나 발전하게 하다의 뜻을 지닌다.

13 가치관과 주체적 태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10쪽

1 (1) 효능감 (2) 선입견 (3) 이타주의
2 (1) 안주 (2) 성숙 (3) 지향
3 (1) 동조 (2) 배척
4 (예시 문장) 우리는 주변의 말에 쉽게 현혹되기보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2 (1) '안주하다'는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를 뜻한다. 오랜 방황 끝에 정착하여 편히 지낼 곳을 찾았다는 내용이므로 '안주'가 알맞다.

(2) '성숙하다'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를 뜻한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한층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성숙'이 알맞다.

(3) '지향하다'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를 뜻한다. 남들과 다른 삶을 목표로 삼아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이므로 '지향'이 알맞다.

3 (1)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상황이므로, 남의 주장이나 행동에 찬성하여 따르는 것을 뜻하는 '동조'가 알맞다. '참조'는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보는 것을 뜻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턱대고 따르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2)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상대를 거부하여 밀어 내는 것을 뜻하는 '배척'이 알맞다. '배부'는 나누어서 줌을 뜻하는 말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4 '현혹되다'는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주체적'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2회 본문 113쪽

1 (1) ㉠ (2) ㉢ (3) ㉡
2 (1) 소재 (2) 유출 (3) 식별
3 (1) 부합 (2) 조작, 주목
4 ③

2 (1) 박물관이 있는 장소가 서울 중심가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므로,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소재(所在)'가 알맞다.

(2)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가 큰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뜻하는 '유출'이 알맞다.

(3)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용의자의 얼굴을 빠르게 분별하여 알아보았다는 내용이므로, 분별하여 알아봄을 뜻하는 '식별'이 알맞다.

3 (1) '부합'은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 것을 뜻한다. 계획이 학교의 교육 목표에 들어맞는다는 의미이므로 '부합'이 알맞다. '위배'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뜻하는 말로, 교육 목표에 들어맞는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2)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미거나 내용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고,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을 뜻한다. 자료가 바뀌었는지보다 그럴듯한 결론에만 관심을 둔 상황이므로 '조작', '주목'이 알맞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목격'은 눈으로 직접 봄을 뜻하는 말이다.

4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내용만을 소비하고 자신의 판단 없이 흘러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의 뜻인 '수동적'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비판적'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태도를 뜻하므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지 않는다.

❷ '자율적'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는 태도를 뜻하므로,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존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❹ '주체적'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뜻하므로, 편견 없이 정보를 수용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❺ '선택적'은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므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종합 문제 11~13

본문 114~117쪽

01 ②	02 ①	03 ②	04 이분법
05 구성원	06 연대	07 이타주의	08 선입견
09 ⑤ 수능형 ⑤		10 ④	11 ③
12 식별, 유출, 척도		13 상용화	14 편의성
15 접근성	16 ③	17 ⑤	18 ②
19 ③	20 ④		

01 ㉠에는 기존의 설명과 서로 맞지 않아 충돌한다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모순'은 〈보기〉와 같은 뜻을 지니며 문맥에도 알맞다.

오답 노트

❶ '구축'은 체제나 체계의 기초를 닦아 세우는 것을 뜻한다.
❸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한다.
❹ '기제'는 내부 구성이나 심리 작용의 원리를 뜻한다.
❺ '투영'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다른 것에 반영하여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02 ㉡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한다.

03 ㉢ '반증 사례'는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를 뜻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면 과거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므로, ㉢의 역할로는 ②가 가장 알맞다.

04 '흑백논리'는 대상을 옳고 그름, 선과 악처럼 두 가지로만 나누어 판단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와 의미가 비슷한 세 글자의 단어는 '이분법'이다.

05 "구성원들이 서로 동의하는 의견만을 나누고 이견은 묵살할 때"에서,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06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연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다."에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을 뜻하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07 "이타주의적 관점, 즉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가짐"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나 사상을 뜻하는 '이타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08 "우리는 종종 선입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판단한다."에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뜻하는 '선입견'을 확인할 수 있다.

09 '상충'은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을 뜻하는 단어는 '보완'이다.

수능형 ㉤ '상충하다'는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난다는 의미이다. '부합하다'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을 뜻한다. 목표를 이루려고 좇아 구한다는 점에서 '추구'와 의미가 통한다. 반면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향'의 반의어로 알맞다.

11 이 글과 ③의 문장에서 '소재(所在)'는 '모두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의 뜻으로 쓰였다.

오답 노트

❶, ❷, ❹, ❺의 '소재(素材)'는 모두 '예술 작품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라는 뜻으로 쓰여, 이 글의 쓰임과 다르다.

더 알아두기 '소재(所在)'와 '소재(素材)'

소재 (바所 있을在)	①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 ②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
소재 (흴素 재목材)	①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 ②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재료. ③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

12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인 정보를 정확히 식별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중요해지며, 보안이 허술하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편의성뿐 아니라 정보 보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식별', '유출', '척도'가 알맞다.

13 물품이나 기술 따위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과거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온라인 서비스로 일상화된 문맥과 어울리므로 '상용화(㉠)'가 알맞다.

14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특성을 뜻하는 말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줄어들어 형편이 편해진 문맥과 어울리므로 '편의성(㉡)'이 알맞다.

15 어떤 장소나 정보, 서비스 따위에 쉽게 다가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다.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된 문맥과 어울리므로 '접근성(㉢)'이 알맞다.

16 ⓒ '안주하다'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여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③은 새로운 도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안주하며'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17 〈보기〉에서는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인되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쌓이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효능감'이다.

오답 노트

❶ '경각심'은 위험이나 잘못을 경계하며 조심하는 마음을 뜻하므로, 과제를 해결하며 얻는 자신감과 맞지 않는다.

❷ '위화감'은 서로 어울리지 못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뜻하므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 경험과 맞지 않는다.
❸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을 뜻하므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
❹ '책임감'은 맡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해내려는 마음을 뜻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개념과 다르다.

18 ①, ③, ④, ⑤의 '조작하다'는 사실이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만든다는 뜻이다. 반면 ②의 '조작하다'는 기계나 장치를 다루어 움직인다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나머지와 의미가 다르다.

19 ㉠에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상관관계'가 알맞다. ㉡에는 직급과 직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힘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권력관계'가 알맞다.

20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는 '불가분'이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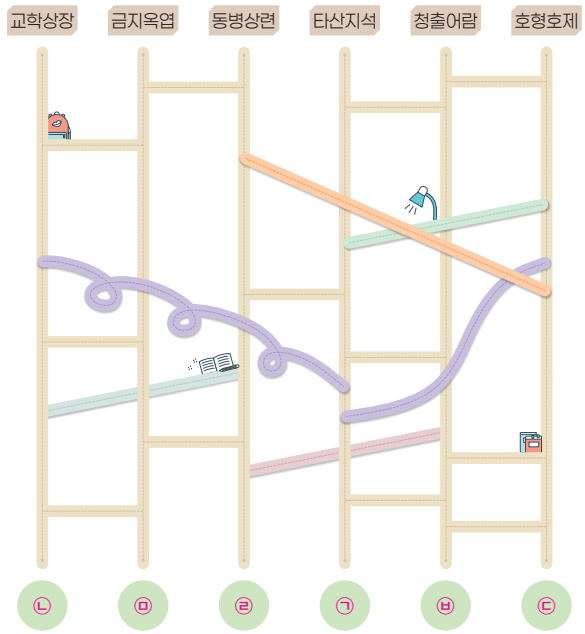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20~121쪽

01 ㉠ 금지옥엽 ㉡ 교학상장 ㉢ 호형호제 ㉣ 동병상련 ㉤ 청출어람 ㉥ 타산지석
02 피, ㉠ **03** 팔(손), ㉤ **04** 아랫물, ㉢ **05** 백지장, ㉡
06 외나무다리, ㉣ **07**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08 난형난제

01



07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미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대해 주어야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민수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를 도와준 것은 이 속담의 의미와 일치한다.

08



두 아들 중 누가 더 낫다고 가리기 어려울 만큼 역량이 비슷한 상황으로, 이를 '난형난제(難兄難弟)'라 한다.

더 알아두기 '난형난제'와 뜻이 비슷한 한자 성어

'난형난제'와 뜻이 비슷한 한자 성어로는 '막상막하(莫上莫下)'와 '백중지세(伯仲之勢)'가 있다. '막상막하'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비슷함을, '백중지세'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세를 뜻한다. 두 표현 모두 실력이나 능력, 세력 등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두루 쓰인다.

독서 영역별 어휘 ❶

14 역사와 문화의 변화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26쪽

1 (1) ㉢ (2) ㉠ (3) ㉡
2 (1) 근대화 (2) 세계화
3 (1) 열강 (2) 연맹
4 ④

2 (1) 개항 이후 서구의 제도와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통 사회에서 벗어나 변화를 겪었다는 내용이므로, 사회나 문화, 제도 등이 근대적인 상태로 바뀜을 뜻하는 '근대화'가 알맞다.
(2)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가 뒤섞이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므로,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뜻하는 '세계화'가 알맞다.

4 서구에서 들어온 석유, 축음기, 화장품 등이 전통과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민중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문물'을 뜻하는 '신문물'이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풍속'은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석유나 축음기와 같은 개별 문물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❷, ❸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뜻하며, 개별 문물보다 더 큰 흐름을 가리키므로 맞지 않는다. '국제화'도 세계화와 비슷한 뜻이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❺ '강대국'은 국제 문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문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2회 본문 129쪽

1 (1) 신분제 (2) 수탈
2 (1) × (2) ○ (3) ×
3 ③
4 (예시 문장) 권력자들의 핍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점차 분노를 키워 갔다.

1 (1) '신분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선의 지배층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태어난 자리를 평생 강제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신분제'가 알맞다. '과거제'는 고려·조선 시대에, 과거를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를 가리킨다.

더 알아두기 **과거제의 시행 취지**
과거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이다. 가문이나 신분만으로 관직을 정하지 않고, 학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2) '수탈'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뜻한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지배층이 불합리하게 백성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므로 '수탈'이 알맞다. '수출'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경우에 쓰는 단어이므로 백성에 대한 지배층의 수취·착취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알맞지 않다.

2 (1) '항쟁'은 상대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전쟁을 반대함'은 '반전'의 의미이다.
(3) 왜란은 조선 선조 때 일본이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이고, 호란은 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3 문맥상 빈칸에는 우월한 위치에서 민중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주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세력을 지닌 계층을 뜻하는 '지배층'이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소외층'은 사회적 관심이나 혜택에서 밀려난 계층을 뜻하므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❷ '평민층'은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을 뜻하므로, 횡포와 착취를 당하는 민중에 해당한다.
❹ '빈민층'은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계층을 뜻하므로, 민중을 착취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
❺ '서민층'은 사회에서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뜻하므로, 민중을 착취하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

4 '핍박'은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굶을 뜻하며, 힘이나 권력을 가진 쪽이 약한 쪽을 억누르고 못 견디게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 제시된 상황은 권력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상황이므로, '핍박'을 사용해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겪는 억압과 고통을 드러내는 문장을 쓴다.

15 관습과 편견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2쪽

1 (1) 답습 (2) 위상 (3) 종속
2 (1) 체제 (2) 인습
3 ②
4 (예시 문장) 만화책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1 (1)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그대로 따름을 뜻하는 '답습'이 알맞다.

(2) 산업 발달로 그 도시가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갖추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뜻하는 '위상'이 알맞다.
(3) 예술이 상업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는다는 뜻의 '종속'이 알맞다.

2 (1) '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그 조직이나 양식을 뜻한다. 전투 상황에 맞게 부대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체제'가 알맞다.
(2) '인습'은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습관을 뜻한다. 전근대적인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인습'이 알맞다.

3 문맥을 고려할 때 ㉠에는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맹목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에는 세상일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별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4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을 넣는 것이 알맞다. 즉,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어야 하며, 그 생각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회

본문 135쪽

1 (1) ㉡ (2) ㉠ (3) ㉢
2 (1) 합리화 (2) 동질적 (3) 우호
3 (1) ○ (2) ×
4 ⑤

1 (1) 여행을 통해 낯선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뜻하는 '이질적'이 알맞다.
(2)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고 단체 모임에서 밀려났다는 내용이므로,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려난다는 뜻의 '배척'이 알맞다.
(3) 관찰자가 미리 정해진 견해를 가지고 관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뜻하는 '선입견'이 알맞다.

2 (1) 그녀의 변명이 구차하게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을 뜻하는 '합리화'가 알맞다.
(2) 두 나라의 문화는 다르지만 이념적 부분에서는 같은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므로, 성질이 서로 같은 것을 뜻하는 '동질적'이 알맞다.
(3)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담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므로,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음을 뜻하는 '우호'가 알맞다.

3 (2) '정당화'는 정당성이 없거나 의문스러운 일을 그럴듯한 이유로 둘러대어 정당한 것처럼 만드는 것을 뜻한다.

4 제시된 글은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접 맞서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끊는 심리를 설명하고 있다. '방어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나타나는 적응 행위를 뜻하므로, 이를 가리키는 말로 알맞다.

오답노트

❶ '인신공격'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비난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관계를 끊어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와는 관련이 없다.
❷ '감정 회피'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뜻하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심리 전체를 가리키기에는 알맞지 않다.
❸ '자기 주도'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일을 이끌어 가는 태도를 뜻하므로,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와는 관련이 없다.
❹ '정신 분석'은 인간의 무의식과 심리를 분석하는 이론이나 방법을 뜻하므로, 글에서 설명한 심리적 작용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기 어렵다.

16 공동체와 법 제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8쪽

1 (1) ㉠ (2) ㉢ (3) ㉡
2 (1) × (2) ○
3 (1) 요충지, 협약 (2) 독자적, 지역화
4 ①

2 (1)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은 '전유물'이며, 그 반의어가 '공유물'이다.

3 (1) 해상 교통에서 그 해협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내용이므로, 교통이나 군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요충지'가 알맞다. 또 통행권을 두고 오랜 갈등 끝에 두 나라가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므로,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는 것을 뜻하는 '협약'이 알맞다.
(2) 외래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자기 고장의 특색을 살려 스스로 방식을 정했다는 내용이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을 뜻하는 '독자적'이 알맞다. 또 자기 고장의 특색을 살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상태나 현상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되는 것을 뜻하는 '지역화'가 알맞다.

4 두 나라의 정상이 신기술 분야의 제약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는 문맥이므로, 빈칸에는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유대'가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❷ '배척'은 어떤 대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두 나라가 협력 관계를 새롭게 맺기로 한 상황과는 반대되므로 알맞지 않다.

❸ '보편화'는 어떤 현상이나 가치가 널리 일반적으로 퍼지는 것을 뜻하므로, 두 나라가 새롭게 맺는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❹ '접경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뜻하므로, 두 나라 사이에 새롭게 형성되는 협력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는 알맞지 않다.

❺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뜻하므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되는 협력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는 알맞지 않다.

2회

본문 141쪽

1 (1) 개정 (2) 위법성
2 (1) 입법 (2) 사법 (3) 행정
3 (1) 규제, 적법성 (2) 제정, 법제화
4 예시 문장 정부는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겠다고 선포하였다.

2 (1) '입법'은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회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이므로 '입법'이 알맞다.

(2) '사법'은 법을 적용하여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확정하는 국가 작용을 뜻한다.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업무이므로 '사법'이 알맞다.

(3)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국가 목적과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을 뜻한다.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므로 '행정'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삼법의 역할**

국가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입법은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고, 사법은 법을 적용해 분쟁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은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3 (1)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제한함을 뜻하는 '규제'가 알맞다. 또 그것이 법에 맞는지를 검토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므로, 법규에 맞는 성질을 뜻하는 '적법성'이 알맞다.

(2) 국회가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는 것을 뜻하는 '제정'이 알맞다. 또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방안이 마침내 법률로 정해졌다는 내용이므로, 법의 체계를 세워서 갖추는 것을 뜻하는 '법제화'가 알맞다.

4 '선포'는 세상에 널리 알림을 뜻한다. 주로 국가나 정부, 지도자와 같이 공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법령·정책·제도 등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힐 때 쓰는 말로, 개인적·사적인 통보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상황에 어울린다.

17 산업과 경제의 흐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44쪽

1 (1) ㉡ (2) ㉢ (3) ㉠
2 (1) 향상 (2) 고용
3 (1) 절하 (2) 무역
4 ③

1 (1)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뜻한다. ㉡은 김 시장이 관광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내용이므로 '산업'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2) '급증'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은 떡볶이를 세계에 수출하면서 판매량이 30%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므로 '급증'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3)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는 뜻이다. ㉠은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내용이므로 '실업'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2 (1) 두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맺었으므로, 실력이나 수준, 기술 등이 더 나아지는 것을 뜻하는 '향상'이 문맥에 알맞다. '위축'은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2)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이 사람을 더 채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므로,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것을 뜻하는 '고용'이 문맥에 알맞다. '실업'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일자리를 늘리고 채용을 돕는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4 '높이기'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나아지게 함을 뜻한다. 접속 속도와 편의성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뜻을 지닌 '제고하기'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회

본문 147쪽

1 (1) 통화량 (2) 임금
2 (1) ○ (2) ×
3 (1) 외화 (2) 산출 (3) 추산 (4) 물가
4 예시 문장 정부는 외국산 과일에 관세를 매겨 가격을 조정하였다.

2 (2) '조세'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뜻한다.

더 알아두기 **조세의 종류와 쓰임**

조세는 거두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이렇게 거둔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3 (1) 원유를 사 오려면 달러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외국의 돈을 뜻하는 '외화'가 알맞다.
(2) 학생들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는 내용이므로, 계산하여 냄을 뜻하는 '산출'이 알맞다.
(3) 현장 조사가 끝나지 않아 실종자 수를 대략 20명으로 짐작하여 셈했다는 내용이므로, 짐작으로 미루어 계산함을 뜻하는 '추산'이 알맞다.
(4) 장마로 채소 공급이 줄어 시장에서 물건값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므로, 물건의 값을 뜻하는 '물가'가 알맞다.

4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종합 문제 14~17

본문 148~151쪽

01 왜란	02 호란	03 신분제	04 숭상
05 규범	06 성행	07 봉기	08 동원
09 ④	10 ③	11 ⑤ 수능형 ②	
12 근대화	13 ③	14 ①	15 ③
16 제정, 개정	17 고용, 촉진	18 ④	19 ③
20 ②			

01 '왜란'은 조선 선조 25년(1592)에 일본이 침입한 전쟁으로, 선조 31년(1598)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1597년에 재침략한 것을 가리켜 '정유재란'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02 '호란'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이다. 청나라의 군신 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고,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청나라에 대하여 신하로서의 예를 행하게 되었다.

03 '신분제'는 봉건 시대에 존재했던 제도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사회적 지위가 정해졌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신분을 바꾸기 어려웠다.

04 '숭상'은 높이 우러르며 소중하게 여김을 뜻하므로,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맥에 알맞다.

05 '규범'은 마땅히 따르거나 본받아야 할 기준을 뜻하므로, 예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의 기준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다.

06 '성행'은 어떤 현상이 매우 성하게 유행함을 뜻하므로, 벼슬을 사고파는 폐단이 널리 퍼졌다는 문맥에 알맞다.

07 '봉기'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세차게 들고일어남을 뜻하므로, 농민들이 곳곳에서 저항한 상황에 알맞다.

08 '동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나 물자 등을 모아 집중적으로 사용함을 뜻하므로, 백성들이 성을 쌓는 일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상황에 알맞다.

09 이 글에서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뜻하므로, ⓐ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오답노트
❶ '새로운 주장'은 이전에 없던 의견이나 견해를 뜻하므로,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
❷ '개인적인 취향'은 개인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뜻하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공유하는 생각을 가리키지 않는다.
❸ '과학적인 근거'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과 의미가 다르다.
❺ '일시적인 유행'은 일정한 기간 동안 널리 퍼지는 현상을 뜻하므로, 오랫동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10 ㉢ '연맹'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가 서로 돕고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함을 뜻한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를 가리킨다.

11 ⓐ의 '통상'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팔거나 교류하는 일 또는 그러한 관계를 뜻한다. ⑤의 '통상'도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움의 뜻으로 쓰였다.

> 수능형 '통상(通商)'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팔거나 교류하는 일 또는 그러한 관계를 뜻하므로 사전적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12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전통적인 사회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체제로 변화해 갔다. 이처럼 봉건적인 것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사회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한다.

13 이 글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사회는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특징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 '변별적인 특징'은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뜻한다.

오답노트
❶ 외부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❷ 다른 문화와 대등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매여 그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한다.
❹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성질이 같거나 비슷한 문화를 뜻한다.
❺ 각 문화의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뜻한다.

14 이 글은 특정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A]에는 여러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인 ①이 가장 알맞다.

15 '동질적'과 '이질적'은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닌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향적'은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중립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뜻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 관계에 있다.

오답노트

❶ '독자적'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태도를, '자주적'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뜻하므로 서로 비슷한 의미 관계에 있다.

❷ '종속적'은 다른 것에 딸려 있는 태도를, '의존적'은 다른 대상에 기대는 태도를 뜻하므로 서로 비슷한 의미 관계에 있다.

❹ '보편적'은 널리 일반적으로 통하는 성질을, '일반적'은 특별하지 않고 널리 해당하는 성질을 뜻하므로 서로 비슷한 의미 관계에 있다.

❺ '적극적'은 어떤 일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주체적'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뜻한다. 두 말은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문맥에서는 의미가 서로 가깝게 쓰일 수 있다.

16 '제정'은 법률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정하는 것이고, '개정'은 이미 있는 법률의 내용을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률을 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17 산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증가한다. 늘어난 소득과 소비는 다시 기업의 생산을 '촉진'한다. '고용'은 사람을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촉진'은 어떤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18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에는 '절하되는'이 알맞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말하므로 ㉡에는 '제고하는'이 알맞다.

19 문맥상 ⓐ '산출하여'는 비용과 기대 효과를 수치로 셈하여 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와 바꾸어 쓰기에 알맞은 말은 '셈하여'이다.

더 알아두기 **'셈하다'의 여러 가지 의미**

1. 수를 세다.
   예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사람 수를 셈하였다.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예 두 사람은 그동안 빌리고 갚은 돈을 꼼꼼히 셈하였다.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다.
   예 가게 주인은 손님이 산 물건값을 셈하여 알려 주었다.

20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상황, 상승 시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해지는 상황 모두 '환율'과 관련되므로 빈칸에는 '환율'이 알맞다.

오답노트

❶ '물가'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뜻하므로,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말로는 알맞지 않다.

❸ '금리'는 빌리거나 맡긴 돈에 붙는 이자의 비율을 뜻하므로,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과는 의미가 다르다.

❹ '환전'은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꾸는 일을 뜻하므로,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알맞지 않다.

❺ '통화량'은 일정 시점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을 뜻하므로,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과는 관련이 없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54~155쪽

01 견물, ㉢	**02** 매점, ㉣	**03** 성가, ㉤	**04** 성대, ㉠
05 만능, ㉡	**06** 천금, ㉥	**07** 박리다매	**08** ㉠
09 ㉤	**10** ㉡	**11** ㉢	**12** ㉣
13 한 푼 돈	**14** 싼 것이 비지떡		

07 싸게 많이 팔아 전체 이익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이 글의 괄호 안에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것을 의미하는 '박리다매(薄利多賣)'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박리다매**

'박리다매'의 '박리(薄利)'는 물건 하나를 팔아 얻는 이익이 적다는 뜻이고, '다매(多賣)'는 많은 물건을 판다는 뜻이다.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면, 개별 상품의 이익은 적더라도 전체 이익은 커질 수 있다.

14



값싼 여행 상품을 선택했다가 정작 필요한 입장료가 포함되지 않아 낭패를 본 상황이므로, 값이 싼 물건은 품질도 떨어짐을 뜻하는 '싼 것이 비지떡'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싼 것이 비지떡**

'비지떡'은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에 쌀가루 등을 섞어 만든 떡으로, 값이 싸고 품질이 낮은 물건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은 가격이 지나치게 싼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독서 영역별 어휘 ❷

18 지구와 우주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0쪽

1 (1) 표면 (2) 궤도
2 (1) 행성 (2) 일식 (3) 자전
3 ②
4 예시 문장 천문 동아리 학생들은 천체를 관측하며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2 (1) 목성이 태양의 힘에 이끌려 그 주위를 돈다는 내용이므로, 중심 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그 둘레를 도는 천체를 뜻하는 '행성'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행성의 의미

한자어 '행성(行星)'은 밤하늘의 고정된 별자리(항성) 사이를 '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며, 영어 단어인 '플래닛(Planet)' 역시 '방랑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우주 공간을 궤도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행성의 운행 특성을 잘 보여 준다.

(2) 달이 태양을 가려 낮인데도 하늘이 잠시 어두워졌다는 내용이므로,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현상을 뜻하는 '일식'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일식과 월식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하여 태양의 일부나 전체를 가리는 현상이다. 반면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하여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일식이 일어나면 낮에 태양의 일부나 전체가 가려지고, 월식이 일어나면 밤에 달의 일부나 전체가 어둡게 보인다. 특히 달 전체가 지구의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개기월식 때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빛 때문에 달이 붉게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일식과 월식은 모두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3) 지구가 남극과 북극을 잇는 선을 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내용이므로, 천체가 자기 안의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뜻하는 '자전'이 알맞다.

3 빈칸의 대상은 초기에는 화산 가스로 형성되었으나, 이후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공급되면서 현재와 같은 성분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천체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의미하는 '대기'이다.

오답 노트

❶ '궤도'는 천체가 일정한 주기로 운행하는 길을 뜻하므로, 지구를 둘러싼 기체층을 가리키는 말로는 알맞지 않다.
❸ '표면'은 물체의 겉부분을 뜻하므로,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나타내지 못한다.
❹ '천체'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 행성, 위성 등을 뜻하므로, 지구를 둘러싼 기체층과는 의미가 다르다.
❺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뜻하므로, 지구를 둘러싼 기체를 가리키는 말로는 알맞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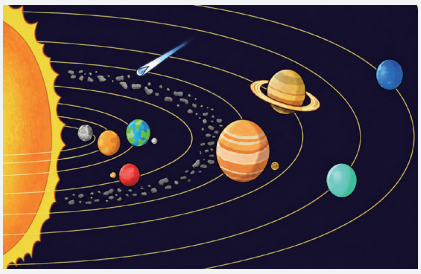
4 '천체'는 우주를 이루는 항성, 행성, 위성, 혜성 등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이며, '관측'은 눈이나 기계로 천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더 알아두기 항성, 행성, 위성, 혜성

천체는 빛을 내는 방식이나 움직임, 구성 물질 등에 따라 항성, 행성, 위성, 혜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성	스스로 빛을 내며 위치를 바꾸지 않는 천체 예 태양
행성	항성의 둘레를 돌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예 지구, 목성
위성	행성의 둘레를 돌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예 달
혜성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태양 주위를 돌며, 태양에 가까워지면 긴 꼬리가 나타나는 천체 예 핼리 혜성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



2회 본문 163쪽

1 (1) ㉠ (2) ㉢ (3) ㉡
2 (1) ○ (2) ○ (3) ×
3 (1) 침강 (2) 추정
4 ⑤

1 (1)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을 수 있으므로, 바닷물을 뜻하는 '해수'가 알맞다.
(2) 배가 지나간 뒤 잔잔하던 바다에 물결이 일었다고 하였으므로, 바다에서 이는 물결을 뜻하는 '해파'가 알맞다.
(3) 기상청이 태풍으로 인한 바닷물의 큰 피해에 대비하라고 안내하였으므로, 바닷물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 육지로 밀려드는 현상을 뜻하는 '해일'이 알맞다.

2 (3) '경도'는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로 방향 좌표축이고, '위도'는 가로 방향 좌표축이다.

3 (1) 지진 이후 지면이 낮아졌다고 하였으므로 지각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거나 꺼짐을 의미하는 '침강'이 알맞다.
(2)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여 판정한다는 뜻이고, '확정'은 일을 확실하게 정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 연대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므로 '추정'이 알맞다.

4 문맥상 빈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 즉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간다는 뜻을 지닌 단어가 어울린다. 따라서 빈칸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샅샅이 더듬어 조사함'을 뜻하는 '탐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19 생명과 공학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6쪽

1 (1) ㉡ (2) ㉢ (3) ㉠
2 (1) 비대 (2) 유입, 증식
3 ④
4 ③

1 (1)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둘 이상으로 나뉘는 현상을 뜻한다. ㉡은 하나의 세포가 여러 세포로 나뉘어 그 수를 늘려 간다는 내용이므로 '분열'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2) '퇴화'는 생물의 기관이나 기능이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은 뱀의 다리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므로 '퇴화'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3) '흡수'는 물질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일을 뜻한다. ㉠은 뿌리가 땅속의 물과 양분을 빨아들인다는 내용이므로 '흡수'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문장이다.

2 (1)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세포·조직·기관 등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인 '비대'가 알맞다.
(2) 오염된 빗물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액체나 물질 등이 흘러 들어옴을 뜻하는 '유입'이 알맞다. 그 안에서 세균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생물이나 세포 등의 수가 늘어남을 뜻하는 '증식'이 알맞다.

3 '기하급수적'은 수나 양이 매우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쓰인다. ④는 매일 한 쪽씩 일정하게 독서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기하급수적'의 쓰임이 어색하다.

오답노트
❶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조회 수가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알맞다.
❷ 세균이 분열하며 빠르게 증식하는 상황이므로 알맞다.
❸ 자동화로 생산 효율이 높아져 생산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알맞다.
❺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알맞다.

4 물이 비, 강물, 바닷물, 수증기 등으로 모습을 바꾸며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가장 알맞은 말은 '순환'이다.

오답노트
❶ '배출'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하므로, 물이 여러 상태로 바뀌며 되풀이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내지 못한다.
❷ '유입'은 물이나 공기 등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뜻하므로, 물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지 못한다.
❹ '유출'은 물이나 물질 등이 밖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뜻하므로, 비가 내리고 수증기가 되어 다시 구름이 되는 반복 과정을 나타내기 어렵다.
❺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뜻하므로, 물이 상태를 바꾸며 되풀이되는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2회

본문 169쪽

1 (1) 유용성 (2) 공학적
2 (1) 질량 (2) 지반, 하중
3 (1) 성립 (2) 지지 (3) 제어
4 (예시 문장) 선생님은 발표가 잘 보이도록 의자를 반원 모양으로 배열하였다.

2 (1) 쇠공은 스티로폼 공과 크기가 같아도 가진 물질의 양이 더 크다고 하였으므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양을 뜻하는 '질량'이 알맞다.
(2) 건물을 세울 때 땅이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땅의 표면 부분을 뜻하는 '지반'과 물체의 무게를 뜻하는 '하중'이 알맞다.

3 (1) 오랜 협상 끝에 양측 사이의 합의가 겨우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므로, 일이나 관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뜻하는 '성립'이 알맞다.
(2) 쓰러져 가는 건물을 벽돌담이 떠받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물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른 물체가 떠받침을 뜻하는 '지지'가 알맞다.
(3) 리모컨으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기계나 설비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조절함을 뜻하는 '제어'가 알맞다.

4 '배열'은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을 뜻한다. 여러 대상이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놓인 상황을 떠올려, 이를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20 예술 창작과 감상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72쪽

1 (1) × (2) ○ (3) ×
2 (1) 기법 (2) 식견 (3) 모방
3 (1) 경외 (2) 전위적
4 ④

1 (1) '압도하다'는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는 '추앙하다'의 뜻이다.
(3) '식견'은 학식과 견문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는 말이다. 새로운 사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2 (1) 영화가 연극적인 요소를 성공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므로, 예술 작품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뜻하는 '기법'이 알맞다.
(2)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예술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뜻하는 '식견'이 알맞다.
(3) 새의 날개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것을 본뜨거나 흉내 냄을 뜻하는 '모방'이 알맞다.

4 원래대로 회복함을 뜻하는 '복원'은 문맥상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기법'은 ㉠, '추앙'은 ㉡, '거장'은 ㉢, '걸작'은 ㉣에 각각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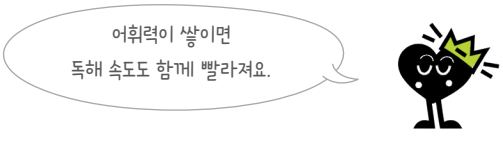
2회

본문 175쪽

1 (1) ㉡ (2) ㉢ (3) ㉠
2 (1) 지각 (2) 해독
3 (1) 향유 (2) 피상적 (3) 식별
4 예시 문장 시조를 음미할수록 그 절제된 형식이 예술 비평에서 왜 높이 평가받는지 알 수 있었다.

3 (1) '향유'는 누리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명화를 감상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누린 상황이므로 '향유'가 알맞다.
(2) '피상적'은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는 문맥이므로 '피상적'이 알맞다.
(3)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봄을 뜻한다.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상황이므로 '식별'이 알맞다.

4 '예술 비평'은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 특성, 가치 따위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비판하는 일을 뜻한다. '음미하다'는 시가를 읊조리며 그 맛을 감상하거나, 어떤 사물 또는 개념의 속 내용을 새겨서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음식의 맛과 향, 식감 따위를 천천히 즐기며 맛본다는 뜻이다.



종합 문제 18~20

본문 176~179쪽

01 표면	02 관측	03 천체	04 궤도
05 ②	06 ㄴ, ㄷ	07 ⑤	08 ③
09 ①	수능형 ⑤	10 ③	11 하중
12 지반	13 질량	14 ④	15 ⑤
16 ①	17 예술 비평	18 ④	19 ③
20 피상적, 해독			

01 "행성 표면의 대기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에서 사물의 가장 바깥쪽을 뜻하는 '표면'을 확인할 수 있다.

02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정밀한 관측"에서 천체의 상태나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을 뜻하는 '관측'을 확인할 수 있다.

03 "밤하늘의 천체에 마음이 이끌려"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 위성, 혜성 등을 통틀어 이르는 '천체'를 확인할 수 있다.

04 "저마다 다른 궤도를 그리며"에서 행성 등이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서 그리는 길을 뜻하는 '궤도'를 확인할 수 있다.

05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하고, 행성이 스스로의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한다. 또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가까워질 때 달이 태양을 가려 지구에서 태양의 일부나 전부가 가려져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에는 '공전', ㉡에는 '자전', ㉢에는 '일식'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6 행성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하고, 중심 별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또한 중심 별의 인력에 이끌려 일정한 궤도를 따라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태양계의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다. 따라서 〈보기〉 중 ㄴ, ㄷ이 알맞다.

07 전통 공연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향유하다'는 문화나 예술 등을 누리고 즐긴다는 뜻이므로 이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다.

오답노트
❶ '경외하다'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하므로, 전통 공연을 누구나 즐기게 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❷ '압도하다'는 뛰어난 힘이나 능력으로 상대를 눌러 꼼짝 못 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연을 즐기는 상황을 나타내지 않는다.
❸ '심오하다'는 사상이나 내용 등이 매우 깊고 오묘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통 공연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쉽게 즐기게 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알맞지 않다.
❹ '식별하다'는 분별하여 알아보는 것을 뜻하므로, 전통 공연을 즐기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8 이 글에서 해수면 상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별도의 현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위도·경도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내용은 없다.

09 ㉠과 ㉡은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닌 말의 관계이다. '상승'은 위로 올라감, '하강'은 아래로 내려감을 뜻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 관계에 해당한다.

수능형 ㉠과 ㉡은 지각판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는 지각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각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두 현상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

오답 노트

❶, ❷ ㉠과 ㉡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므로, 해수면 상승과 그 원인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❸ 글에는 ㉠과 ㉡이 각각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 없다. 두 현상은 모두 지각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며,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

❹ ㉠과 ㉡은 동일한 지각 변동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10 '가늠하다'는 어떤 일을 어림잡아 헤아리거나 판단하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재해의 규모를 어림잡아 판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가늠하며'를 '추정하며'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1 '하중'은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나 무게를 뜻하므로, 건물이 견뎌야 하는 무게를 가리키는 ㉠에 알맞다.

12 '지반'은 건조물의 가장 아랫도리가 되는 밑바탕을 뜻하므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을 가리키는 ㉡에 알맞다.

13 '질량'은 물체가 지닌 고유한 역학적 기본량을 뜻하므로,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을 가리키는 ㉢에 알맞다.

14 ⓐ는 새로운 기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성질을 가리킨다. 이처럼 어떤 것이 실제로 쓸모가 있거나 도움이 되는 성질을 '유용성'이라고 한다.

오답 노트

❶ '경제성'은 비용이나 수익의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성질을 뜻하므로, 기술이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❷ '도덕성'은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성질을 뜻하므로, 기술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❸ '독창성'은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낸 성질을 뜻하므로, 기술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한 ⓐ와는 거리가 멀다.

❺ '안정성'은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안정된 성질을 뜻하므로, 기술이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15 '상용화'는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⑤는 개발된 번역 기술이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되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경우이므로 '상용화'의 예로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제품의 판매와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므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로 널리 사용하게 하는 '상용화'의 예로 알맞지 않다.

❷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단계일 뿐이며, 안전성이 확인되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용되는 단계는 아니다.

❸ 로봇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 모형을 조립한 상황으로, 개발된 기술을 대중이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아니다.

❹ 새로운 이론을 세우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단계이므로,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16 ①의 '지각(地殼)'은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는 층을 뜻하고, ②~⑤의 '지각(知覺)'은 모두 알아서 깨닫거나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뜻한다.

17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 특성, 가치 따위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비판하는 활동을 '예술 비평'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3문단의 "한 전문가는 이 작품을 다룬 예술 비평에서, 그림에 담긴 상징을 제대로 해독하려면"에서 '예술 비평'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알아두기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 비평**

예술 비평은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예술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활동이다. 단순히 작품이 '좋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작품의 표현 방식과 주제, 창작된 시대와 사회적 배경 등을 근거로 자신의 판단을 설명한다. 같은 작품이라도 어떤 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작품 자체의 형식과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이나 창작자의 삶,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 비평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18 '복원'은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은 '모방'의 사전적 의미이다.

19 ⓐ는 그림의 상징을 하나씩 식별해 나가면 그림에 담긴 의미가 예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징을 찾아낼수록 그림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이해한 ③의 내용이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상징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그림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❷ 정물화에 다른 종류의 그림보다 상징이 많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❹ 글에서는 상징을 제대로 해독하려면 화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❺ 그림의 의미가 생각보다 깊다는 뜻이지,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 이 글은 혹평받던 그림이 복원 이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걸작으로 재평가된 과정을 소개하며,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깊은 의미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펴 풀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작품을 겉만 보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본질은 파고들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을 뜻하는 '피상적'이 알맞다. 또한 화면에 숨겨진 상징의 뜻을 시대적 배경까지 살펴 풀어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잘 알 수 없는 암호나 기호 따위를 읽어서 푸는 것을 뜻하는 '해독'이 알맞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82~183쪽

01 박학다식	02 군계일학	03 팔방미인	04 낭중지추
05 대기만성	06 ⑤	07 ㉡	08 ㉤
09 ㉠	10 ㉢	11 ㉣	12 굼벵이

01~04

백	정	팔	방	미	인
낭	중	지	추	리	산
아	신	삼	증	박	인
고	군	계	일	학	해
분	곡	구	축	다	반
투	모	순	리	식	견

05 '대기만성(大器晩成)'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30년 가까운 무명 생활 끝에 뒤늦게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상황과 잘 어울린다.

06 '백미(白眉)'는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중국 삼국 시대 마량의 흰 눈썹과 뛰어난 재주에서 유래하여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하는 말이다.

12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만화 속 남학생은 다른 일들은 서툴렀지만 달리기는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학생의 마지막 말에는 '굼벵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memo



memo



memo



memo

